

■ 2년 앞... 광주 하계U대회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시설 등 '큰 틀' 완성... 남북 단일팀 구성도 순항



2015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 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가 꼭 2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9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광주가 2015U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3년 동안 대회 조직위원회는 시설과 운영, 자원봉사, 국제협력 네트워크 등 4가지 핵심분야의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각종 신설경기장 입지선정과 선수촌 재건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큰 틀을 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유엔과 협력해 국제종합스포츠대회 최초로 남북 단일팀 구성도 추진 중이다. 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한다.

◇경기장 및 선수촌=광주시는 완벽한 대회 추진을 위해 경기장 76개소(광주 58, 전남 18)를 국제 규격에 맞게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국제규격 미달로 개보수가 불가능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은 올 4, 5월 각각 공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17일 광주시 화정동 일원에 신축중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아파트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에 들어가면서 2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건물의 지상 골격은 내년 3월경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도심재생을 목표로 낡은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한 선수촌 아파트는 현대건설에서 지난 9월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3개 단지 35개동 3726가구(전용 59~101㎡형·15~33층)가 지어지며, 2015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기장 및 선수촌	자원봉사자 육성	남북단일팀 구성	EPIC 프로그램	남은 과제
경기장 76개 신축·리모델링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공사	서포터즈 12만명 목표 1만4800명 순차적 교육	반기문 유엔총장이 지원 남북협상 분위기에 활기	친환경·평화·최첨단·문화 차세대의 가치 창출·공유	5562억 시비 투입 부담 후자 대회로 만들어야

남부대 캠퍼스 안에 짓고 있는 수영장은 연면적 1만923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경영 풀(50×25×3m, 10레인), 다이빙 풀(33×25×5m), 연습 풀(50×21m, 8레인)이 들어서고, 관람석도 3590석이나 된다. 총사업비는 684억원이다. 여기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해 1만5000석을 증설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2015년 3월 완공이 목표다. 특히 신설 수영장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이용한 '고효율 저비용의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지어진다.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계체조와 리듬체조, 배구 등이 열리는 다목적 체육관은 광주여자대학교내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7723㎡, 관람석 8327석 규모로 오는 2015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또 양궁장은 별도의 공간에 지었다 바로 철거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테니스 코트는 진월국제 테니스장이 활용된다. 경기시설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승인을 거쳐 2015

년 상반기 내에 국제공인 획득철자를 밟게 된다.

선수과 입원 등 170여개국 1만4000여명이 사용할 선수촌도 세계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재건축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다. 화정주공 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선수촌은 오는 2015년 4월까지 3726세대 규모로 지상 15~33층 35개동으로 건립되며, 총 21일간(대회전 7일, 대회기간 12일, 폐막후 2일) 사용된 뒤 정소 등을 거쳐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다.

◇자원봉사자 육성=12만명 자원봉사자를 목표로 시민과 대학생 서포터즈를 육성 중이다. 시는 양질의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광주영어방송과 연계한 인력양성, 시민외국인 스킴, 시민사이버 스킴 운영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특히 2015년까지 장기간 프로젝트 '외국어 스쿨'을 개설하고, 광주지역 10개 대학 언어교육원에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 외국어 과정도 운영 중이다. 이 프

로그램은 매년 1004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자원봉사학교를 열고 1만48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순차적인 기본교육에도 돌입한 상태다.

◇남북 단일팀 구성=강운태 광주시장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남북 단일팀 구성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했다. 반 총장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오는 8월 광주에서 열리는 YLP(유스리더십 프로그램) 유엔행사에 북한 청소년 4명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한 윌프리드 롱게 유엔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은 북한 체육계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오는 8월 광주에서 열리는 YLP에 북한 청소년 4명의 참가를 공식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상태다.

북한 청소년의 참가가 현실화될 경우 공식행사에서 남북한 청소년의 첫

만남이 되며,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단절된 남북스포츠 교류도 재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EPIC 프로그램=전 세계 청년들의 축제인 광주U대회는 4대 콘셉트를 친환경(Eco), 평화(Peace), 최첨단(IT), 문화(Culture)의 각 단어 첫 글자를 조합한 에픽(EPIC)대회로 정했다. 에픽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IT혁신가, 문화예술가, 스포츠 스타 등을 'EPIC 스피커'로 섭외해 전 세계 청년들의 멘토로 묶어주는 것이다. 에픽 스피커는 웹사이트에서 세계 청년들과 온라인 대화도 나누고, 2015년까지 광주에서 개최되는 포럼과 유스리더십 캠프 등에 참석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게 된다.

또 UN과 공동으로 분쟁지역이나 개도국에서 건강, 성별, 장애, 교육, 평화 등의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청년들을 평화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하계유니버

아드 대회를 단순한 스포츠 경쟁의 장이 아닌 전 세계 젊은이들과 국제적인 명사들의 만남 등을 통해 차세대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이번 광주U대회의 특징중 하나다.

◇과제=광주시는 U대회 개최를 위해 시설 확충비와 경기운영비로 2015년까지 시비 5562억원이 투입된다. 개최 총비용 8171억원 가운데 국비 2609억원(32%)보다 지방비가 2배 이상 들어가는 셈이다. 시는 이에 따라 대기업 스폰서 유치와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을 이용한 기념품 및 생활용품 판매, 남북 단일팀 등 대형 이슈 창출을 통한 대회 흥행 유도, 유명 스포츠 스타 참가 등 스타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5562억원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예술가에 영감 준 뮤즈... 그녀는 행복했을까?



(36) 뮤즈

지난 달 말, 광주극장에서 영화 '마리 크뢰이어'를 관람했다. 마리 크뢰이어(1867~1940)는 화가 페테르 세베린 크뢰이어(1851~1909)에게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던 뮤즈이자 아내다. 과묵한 탓에 영화를 통해 P.S 크뢰이어를 처음 만났다. 영화 속 크뢰이어는 마리와 함께 있는 동안은 빛나는 화가였지만 마리가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 떠난 후엔 예술도 육체도 시들어 버린다. 영화의 긴 여운 속에서 크뢰이어의 그림을 찾아보았다.



크뢰이어 작 '스카겐의 여름 석양'

인상파의 영향을 받은 빛의 화가 크뢰이어는 덴마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불렸던 아내 마리만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유명하다. 마리의 모든 것은 지금도 그의 그림 속에 살아있다. 영화에서도 묘사되었듯 '스카겐의 여름 석양'은 덴마크 최북단 스카겐 바닷가에 서있는 마리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살짝 옆으로 얼굴을 돌린 마리의 고풍적인 모습에 북극의 푸르른 노을빛이 반사되어 아름답기 그지없다.

뮤즈는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믈네모시네가 낳은, 세상의 온갖 예술을 담당하는 여신. 그 뮤즈의 화신들이 예술가의 영혼을 자극해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한다.

니체, 릴케, 프로이트 등 20세기 유럽 지식인들이 매혹시켜 정신적으로 고양시켰던 루 살로메, 폴 엘뤼아르, 에른스트, 달리 등 예술가의 잠재된 영혼을 뒤흔들었던 같다. 우리에겐 시인 이상의 아내였다가 사별 후 김환기와 재혼한 김환안도 아내이자 동지이며 뮤즈로 손꼽힌다. 예술가의 뮤즈들은 마리처럼 아름다웠는가 하면, 살로메나 김환안처럼 그 자신 작가이자 예리한 비평가로서 지성과 열정을 지니기도 했다.

크뢰이어의 뮤즈는 행복했을까? 영화 속 마리는 그의 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고 '다른 세계로 반사되어 아름답기 그지없다. 뮤즈는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믈네모시네가 낳은, 세상의 온갖 예술을 담당하는 여신. 그 뮤즈의 화신들이 예술가의 영혼을 자극해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빛의만정 - 김중두



자기를 일이나 좀 잘하지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씻코

코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배려호기/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을 제거하여 만성 비염을 개선
- 무자극/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온가족이 상비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기의 알코올이 없음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비염/간지러운 코/코 건강에 사용

용량·용량/성인: 용량에 따라 필요 시 약해 비강세척제 2회 분무하십시오.

※연령, 증상에 따라 약량에 조정하십시오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뽕코

코속에 뿌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배려호기/코감기/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만성 비염을 개선하여 코 건강을 회복
- 중성/중성/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한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들 해소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환부에만 작용하는 안전한 하기의 알코올이 없음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간지러운 코, 코막힘, 코건강, 코건강에 사용

용량·용량/성인: 용량에 따라 필요 시 약해 비강세척제 2~3회 분무하십시오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담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